

‘부실공사’ 순천만 소리체험관 11년만에 철거 말성

지하·옥상 누수 등 부실 심각
15억 투입...행정 신뢰도 흔들
시 “철거후 흙 매워 잔디 조성”

순천시가 순천만 철새와 자연의 소리를 방문객에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대대동에 조성한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관’이 누수 등 부실공사 등으로 11년만에 철거돼 비난을 받고 있다.

순천시 순천만보전과가 공사감독을 하는 소리 체험관 철거공사가 지난 2월14일 착공해 5월13일 준공 예정이다.

소리 체험관 철거공사비는 2억3869만 4000원으로 폐콘크리트 2263톤과 혼합 폐기물 122톤을 처리한다.

소리 체험관은 2013년 3월28일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순천만 습지 내에 개관한 이후 채 1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관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소리 체험관 지하가 계속 누수된 점이 원인이다.

누수는 지하뿐 아니라 1층 일부도 발생했으며 옥상인 2층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건축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소리 체험관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자연의 소리 체험 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15억원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건축 전문가들의 현상 공모를 통해 착공 10개월 만에 완공했지만 이번 폐관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순천시 행정 및 신뢰도에 치명타가 불가피해졌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갈대, 바람, 철새 등 소리 체험을 가능하게 한 소리 체험관은 개관 당시 국내 유일 자연의 소리 체험 공간으로 평가 받았지만 부실시공 등으로 사라지게 됐다.

소리 체험관 철거에 대해 시민들은 건립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부실공사로 철거한다면 건립공사비와 철거비 같은 예산 낭비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리 체험관을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살펴봤지만 건축 전문가



순천만 소리체험관이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조성된 지 11년만에 철거하게 돼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고쳐서 쓰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결국 폐관

을 결정했다”며 “소리 체험관이 철거되면
해당 부지에 흙을 매워 잔디광장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순천 배서준 기자

‘펫팸족 겨냥’ 샴푸 등 상품 출시... 연관산업 탄력

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
스마트팜 연계 기술 활용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에서 탄생한 반려동물 제품인 ‘펫팸(Pet-Family)족’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재)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가 지역 개비자 나무에서 추출한 당대당이 멀티밤과 샴푸(사진)를 내놨다. 스마트팜 연계 기술을 활용한 개비자나무 묘목과 잎생산에 성공하면서 반려동물 제품개발·연관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출연기관인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스마트팜 연계 기술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어려운 개비자나무의 묘목과 잎 생산에 성공했다.

개비자나무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3중 보습 멀티밤, 트리플케어 샴푸를 만들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보다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천연소재로 만든 제품이 경쟁력을 가진다. 개비자나무 바이오 소재는 병풀 추출물 대비 항염증 효과가 117.3% 높다.



(재)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는 반려동물 제품개발·연구, 기업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출시 제품은 생활용품 판매점인 ‘아트박스’에 등록을 마치고 ‘어바웃펫’ 온라인 쇼핑몰은 등록 중에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동반한 새로운 관광문화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천에서 개발한 반려제품들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며 숙박·체험·쇼핑 등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선정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캠핑과 마라톤, 이색 밥상 즐기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반려제품 수익장출과 홍보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산불 대응태세 점검... 유관기관 협의회

순천시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4월에 산불 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기준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수 발생하고, 건조주의보 발령과 산불위험지수 상승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4월은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에 영농준비를 위한 불법소각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순천시 유현호 부시

장이 주관하여 산불대응 관련부서와 순천소방서, 순천경찰서, 순천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 98보병여단 3대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중점 추진 대책을 공유하고 협조체계 등을 논의했다.

유현호 순천시부시장은 “매년 4월은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많은 시기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와 등산객 실화가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청, 소방, 경찰, 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2일 순천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순천, 여수, 광양 장애인생활체육 교류전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순천·여수·광양시, 장애인생활체육 교류전 성료

순천시장애인체육회(회장 노관규)가 지난 12일 순천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3개 시(순천, 여수, 광양) 장애인생활체육 교류전’을 가졌다.

15일 순천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순병규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

애인체육 정식종목 8개(게이트볼, 당구, 론볼, 보치아, 배구, 배드민턴, 실내조정, 탁구)와 화합 종목 1개(단체줄넘기)를 종목별로 진행했다.

순천시는 선수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하여 당구, 배구, 론볼, 탁구 등 4개 종목에서 1위를, 게이트볼, 단체줄넘기,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에서 2위를, 실내조

정은 3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이기정 순천시 문화관광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교류전이 선수 여러분들의 기량 발휘는 물론, 3개 시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시티투어버스 ‘5월 기획 투어-야간코스’ 운행

순천시가 순천시투어 5월 기획 코스를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티투어 버스타고 ‘달디달고 달디달 밤순천, 봄순천’이라는 주제로 순천의 낮뿐만 아니라 밤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5월 기획투어에는 야간 코스 ‘정원의 밤’을 신규 운행한다. 셋째·넷째주 토요일에 순천역에서 오후 6시 출발해 야간개장하는 순천민국가정원부터 아랫장야시장까지 가보는 코스다.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를 형상화한 ‘스페이스 브릿지’, 노을정원에 들어선 ‘두다하우스’, ‘수상퍼레이

드’ 등 밤에만 볼 수 있는 정원의 야간콘텐츠와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낮과는 또다른 정원의 새로운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수요일에는 사찰투어가 운행된다. 순천의 대표적 사찰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송광사와 선암사를 가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대한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전통 산사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둘째주 토요일에는 4월에 선보였던 ‘촌강스’ 코스를 계속 운행한

다.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며 마을에서 난 고들뚝기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마을 속으로 머무르며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등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준비했다”며 “순천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훨씬 아름다우니, 5월 여행도 시티투어 버스타고 순천에서 달달한 봄과 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투어는 5월4-6일 어린이날 연휴에도 휴무 없이 운행한다. 요금, 운행코스 등 상세 내용 확인과 온라인 예약은 순천시바로예약(www.suncheon.go.kr/yeyak)에서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